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방분권,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

개헌 실현,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발안·투표제 강화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 등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언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국정과제 제언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주최로 29일 부산광역시 BEXCO 컨벤션홀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국정과제 제언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가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이하 분권협의회) 주최로 29일 부산광역시 BEXCO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송하진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도지사),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인 박재을 부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병희 충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박병희 전남도 순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김기석 강원도 춘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의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분권협의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안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7대 지방분권 과제를 제언했다.

7대 지방분권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 ▲지방자치법 개정(제28조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강화,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분권형 광역연합(메가시티), 광역지방정부 구축, ▲수도권 대학중심의 대학 서열화 체계 혁신, ▲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 통합으로

부총리급 기구 설치 등이다.

또한, 지역의 위기가 나라 전체의 위기에 따라 지역이 스스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분권 개헌 자치입법·조직·재정권의 확대, 주민참여권 강화, 분권형 광역연합인 권역별 메가시티와 분권형 지방정부 구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해 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존 정책으로 심화된 지역 불균형을 막기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 산업 경쟁

력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0대 공약 중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이날 분권협의회는 전북도 새만금공항 조기착공 등을 포함한 7대 과제 28개 사업 등 17개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 및 정책도 내놓았다.

이 공약은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이란 큰 그림 속의 소재들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지방분권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2022년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시행으로 상

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분권 개헌, 지방균형발전 등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하루 빨리 지방분권 강화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발전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추진축을 강화"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 강화와 재정확대, 중앙 지방협력회의의 지속적 개최와 성숙,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원 보전, 전복 등 강소권을 포함한 초광역사업의 균형지원이 진정성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을 고대한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고창에서 군산까지 잇는 서해랑길 전북 구간 연결

15개 코스 구성 6개 코스가 '전북 천리길' 과 연계
도, '어슬렁어슬렁 길투어' 연계 프로그램 운영키로

고창·부안·김제·군산으로 이어지는 '서해랑길' 전북 구간 연결이 마무리돼 여행객들에게 여행·체험 1번지 전북도만의 정취를 선사할 전망이다.

도는 '코리아플레길' 서해랑길의 전북 구간(고창·부안·김제·군산)이 연결돼 여행객을 맞는다고 9일 밝혔다.

'코리아플레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구축한 약 4,500km의 걷기여행길로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DMZ 평화의 길, ▲동해안의 해파랑길, ▲남해안의 남파랑길, ▲서해안의 서해랑길로 이뤄졌다.

서해랑길 전체 노선은 전남 해남 땅끝전망대부터 인천 강화까지 109개 코스 약 1,800km에 달하며, 전북 구간은 서해안에 인접한 고창, 부안, 김제, 군산 4개 시·군의 15개 코스 약 234km이다.

지난해 9월 최종 노선이 확정됐고, 서해랑길 이용자 편의를 위한 노선별 각종 안내판 설치를 시작해 올해 3월에 마무리됐다.

서해랑길은 기존의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만들어졌는데, 전북 구간 15개 코스 중 6개 코스가 도에서 엄선한 명품 걷기여행길인

'전북 천리길'과 연계된다. 도는 '어슬렁어슬렁' 전복여행길 투어와 연계해 서해랑길과 전복천리길을 함께 홍보하고, 서해랑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8일부터 진행 중인 어슬렁어슬렁 전복여행길 '길' 투어 대상으로 4월에 김제 새만금 비탈길(서해랑길 52코스), 7월에 군산 청암산 둘레길(서해랑길 53코스)이 예정돼 있어 걷기여행 체험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과 함께 서해랑길 이용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 걷기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걷기여행 친화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도내 걷기여행길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운동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행래, 청정지역 전북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담은 서해랑길에서 일상의 피로를 풀고 좋은 기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서해랑길과 전복천리길을 걸으며 명품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농식품기업 육성에 757억 투자

국식품 10개 468억 · 지역 농식품 기업 분야 8개 사업에 289억

기술개발, 장비공동활용 기업기술 지원 등 입주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에 237억을 투자한다.

기 구축한 6대 지원시설에 이어 신기업지원시설인 소스산업화센, HMR기술지원센터,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는 구축을 완료했고, 기능성식품제조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기능성원료은행,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에 2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농식품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식품기업 창업, 안전한 먹거

리 식품, 산제품 개발 등 등을 위해 8개 사업에 289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부권 6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동부권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27억을 투자한다.

중소식품기업의 가공시설 개보수, 장비 교체, 제품 연구개발, 품질 인증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22억을 투자한다.

식품기업의 원료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 농식품

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식품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간체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 생산을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34억 원을 투자한다.

식품기업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HACCP 인증유지를 위해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의 초기 시설자금을 위해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국

가식품클러스터 비입주 식품기업의 기업지원시설 정비(화물(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업지원시설의 확대 구축,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활성화와 신제품 개발,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으로 전북도를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